

# 부산시민도서관 소장 근대자료의 보존체계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Strategies to Improve the Preservation System for Modern Materials in the Busan Metropolitan Simin Library

차 성 종 (Sung-Jong Cha)\*\*

김 신 영 (Sin-Young Kim)\*\*\*

###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논의사항    |
| 3. 연구 방법  | 6. 결론 및 제언 |

### 초 록

본 연구는 부산시민도서관에 소장중인 1950년대 및 이전 발행 근대자료에 대한 소장현황 등을 분석하고, 해당자료의 가치판단과 보존환경 점검 등을 통해 부산시민도서관 귀중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보존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민도서관에 소장중인 1950년대 및 이전 발행 근대자료 9,068권에 대한 보존상태 점검, 목록데이터 보정 및 소장현황 분석, 자료적 가치 평가, 도서관의 서고 환경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부산시민도서관의 귀중자료 보존체계 구축 방안 세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귀중자료 보존을 위한 현재의 서고 공간을 리모델링 혹은 제3의 장소로 이관한 보존 계획의 수립, 둘째, 부산시민도서관의 서고에 수장된 귀중자료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자연적 열화나 산성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셋째, 부산시민도서관의 고문헌 및 귀중자료 관리의 체계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직 정비 및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각각 제시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current status of the Busan Metropolitan Simin Library's collection of modern materials published in the 1950s and earlier. It also assessed their value and assessed their preservation environment.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plan for establishing a preservation system for the library's valuable materials. To this end, the preservation status of 9,068 volumes of modern materials published in the 1950s and earlier was assessed, catalog data was revised, the current holdings were analyzed, the material value was assessed, and the library's storage environment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nd three proposals for establishing a preservation system for the library's valuable materials were proposed.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preservation plan to remodel or transfer the current storage space for the preservation of valuable materials to a third location was suggested. Second, measures were prepared to prevent natural deterioration or acidification to prevent further damage to valuable materials stored in the storage space of Busan Metropolitan Simin Library. Third, the necessity of reorganizing related organizations and reinforcing personnel was suggested to secure a system and expertise in the management of old documents and valuable materials of Busan Metropolitan Simin Library.

키워드: 부산시민도서관, 1950년 이전 발행 근대자료, 귀중자료, 가치판단, 보존체계 구축

Busan Metropolitan Simin Library, Modern materials published before 1950, Valuable materials, Value judgment, Establishing a preservation system

\* 본 논문은 '시민도서관 귀중자료 상태점검·가치평가 및 보존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cha@silla.ac.kr / ISNI 0000 0004 6426 6924) (제1저자)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ykim@dgu.kr / ISNI 0000 0004 7390 3462)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1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1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2월 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1): 31-54,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1.031>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부산시민도서관은 1901년 일본 홍도회 부산 지부 도서실로 설립된 이후, 1911년 사립 부산 교육회에서 승계·운영되었으며, 1919년 4월 부산부로 이관되어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1982년에는 부산직할시립시민도서관으로, 1995년에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12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근대 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민도서관은 2017년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고문헌 특성화도서관으로 지정되어 고문헌 및 관련 학술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희귀한 근세한·일 외교관계 고문헌과 일제강점기 도서 등 다양한 귀중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산시민도서관을 비롯한 다수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및 귀중자료는 물리적 노후화와 산성화로 인해 점차 훼손·소멸되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와 과학적 보존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부산시민도서관의 경우, 1950년대 및 이전에 발행된 근대자료 9,068권이 현재 일반서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심각한 산화 및 열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산처리 등 전문적인 보존처리 없이 일반도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의 귀중자료 지정 기준은 발행 연도(50년 경과 여부)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자료의 희귀성, 유일

성, 서지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학술적 가치가 높은 귀중자료의 체계적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국내 공공도서관 중 고문헌 등 귀중자료를 소장한 기관은 약 37개관으로 파악되며, 전체 소장량은 약 32,138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부산시민도서관, 서울종로도서관, 한국학생도서관, 대구시립중앙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서울남산도서관, 강진군립도서관, 경북안동도서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귀중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 2018). 그러나 국내 공공도서관의 귀중자료에 대한 발굴·수집·정리·보존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실증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귀중자료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수장고, 전시 공간, 보존처리 시설, 전문인력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관리 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민도서관이 소장한 1950년대 이전 발행 근대자료 9,068권을 대상으로 자료적 가치 평가, 보존 상태 조사, 목록 데이터 정비, 국내 타 도서관 소장 현황 비교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산시민도서관의 근대자료를 포함한 귀중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부산시민도서관이 귀중자료의 자연적 열화와 물리적 손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단기적 보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선행 연구

조영주(2004)는 도서관 및 기록관 자료 보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서관과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한 자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사명, 규모, 소장자료의 성격, 이용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인 자체 자료보존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것에 덧붙여서 각 기관 차원의 자체적인 자료보존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지역, 국가, 국제적인 수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강조하였다.

아돌프 크놀과 윤정옥(2005)은 체코공화국 국립도서관의 회귀 자료 보존 사례 연구를 통해 체코 국립도서관에 소장중인 회귀 자료에 대한 이미지 문서화와 원본문서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기술 제공방안 등을 소개하고 도서관 회귀 자료의 보존과 접근을 위한 디지털화의 표준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박현주(2012)는 인천 화도진도서관 향토개항문화자료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서 특성화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인 화도진도서관은 1988년 개관 초부터 향토자료 코너를 마련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간 자료의 집중 수거, 개인 소장가 대상 기증 유도 등을 통한 지속적인 향토자료 수집, 자료보존, 자료발간, 향토역사교육,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2014)은 기출판된 자료들을

통해 근대문학자료유산의 기초목록을 작성하고 각 기관별 검색 및 현장조사를 통해 근대문학자료유산의 소장처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우리나라 근대문학자료유산 소장 현황을 확인하고 국내에 소장된 근대문학자료유산의 총목록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성한 총목록을 바탕으로 근대문학자료유산의 기관별, 지역별, 장르별 소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국내 근대문학자료유산의 총량을 확인하고 이를 목록화하는 작업이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혜란 외(2015)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자료 보존현황을 파악하여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을 위한 도서관간 협력방안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663개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시설과 환경,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료보존·복원센터의 건립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보존을 위한 과제로 첫째, 개별도서관 차원의 자료보존 및 복원을 위한 자료관리정책의 확립 둘째, 공공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 자료보존·복원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2017)은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연구를 통하여 100년이 넘는 한국 근대문학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는 개별적으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근대문학자료의 관리, 보존, 활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관리의

관점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근대문학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을 활용한 소장자료목록 작성·관리,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 구축 등의 방안이 포함된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개선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였다.

김수미(2018)는 국내에 소장 중인 고서 중 서양의 제본방식으로 만들어진 도서가 보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훼손 유형에 따른 보존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서양고서 보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과학적 분석을 한 후에, 고서의 상태에 맞는 보존대책으로 탈산처리 및 보수와 복원 그리고 보존환경 개선과 보존상자 제작방법 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내에 소장 중인 19세기 이전 서양고서의 훼손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보존방법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고문헌 및 근대자료 등 귀중자료에 대한 소장 실태와 보존환경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자료의 소장 현황, 운영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보존 현황을 분석하고, 자료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과 자료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등을 목표로 수행되어왔다.

본 연구 또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연구 방법과 주요 분석 과정 등을 토대로 부산시민도서관의 1950년대 및 이전 발행 근대자료의 보존 및 소장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자료들을 대상으로 자료적 가치 판단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민도서관의 1950년대 및

이전 발행 근대자료를 포함한 귀중자료의 서고 환경 및 자료상태 등을 진단하여 부산시민도서관의 귀중자료 보존체계 제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2 귀중자료

### 2.2.1 귀중자료의 개념

일반적으로 귀중자료는 세상에서 별로 볼 수 없는 고판본 따위의 도서로서 그 가치가 매우 진귀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로 특별히 보관하고 다루는 장서를 말한다. 또한 간행 또는 서사 연대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자료적인 가치가 크고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 특별한 보관이 요청된 자료를 지칭하기도 한다. 귀중본, 귀중도서, 귀중서, 회구서, 회귀본, 진본, 선본 등의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귀중본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해서는 보관상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일반인들에게 원본 열람은 금지되는 편이다.

주로 귀중자료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해서 시대적인 구분, 내용상의 구분, 형태상의 구분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 국보·보물 등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 둘째, 1592년 이전에 쓰거나 베긴 것, 셋째, 1592년 이전에 인쇄한 활자본이나 목판본, 넷째, 유명한 사람이 쓴 원고·고본(稿本)·서간(書簡) 등, 다섯째, 유명한 사람이 간본(刊本)에 기록을 하거나 비주(批注)를 써넣은 것, 여섯째, 공적인 기록이나 문서류의 원본(原本)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 일곱째, 활자본이나 종이의 실물 표본을 모은 표본집, 여덟째, 우표 또는 화폐의 실물이 붙여진 표본집, 아홉째, 인보(印譜)로서 인

장을 실제로 찍어 모은 것, 열째, 육필(肉筆)로 그린 그림이나 지도가 들어 있는 것, 열한째, 한글이 들어 있는 어느 시기 이전의 필사본이나 간본, 열두째, 독립운동가나 애국자들이 쓴 1945년 이전의 필사본이나 인쇄본, 열셋째, 1910년 이전에 외국에서 인쇄하였거나 쓰여진 우리나라 관계의 내용이 들어 있는 자료, 열넷째, 1945년 이전에 외국에 망명 또는 살고 있는 우리 나라 사람이 쓴 필사본이나 간본, 열다섯째, 1592년 이전에 만들었거나, 지금은 없어진 금석문(金石文)을 탁본한 것 등을 포함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25).

국내 최대 고문헌 소장처로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매년 고서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 고문헌 중 효종 10년(1659년) 이전 또는 국내 유일본 등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20종 내외를 귀중자료로 지정한다. 2023년 현재 고문헌 귀중자료는 1,083종 3,774책으로, 귀중본 서고에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귀중자료로 지정된 자료는 우선적으로 디지털화, 자료 해제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 2.2.2 근대자료의 개념

서양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절대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시기, 즉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시기를 유럽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를 근대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근대적인 발전이 봉건 사회의 잔재를 차차 압도하면서 우세해졌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을 겪음으로써 19세기 유럽 근대 사회가 완성을 보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민석홍, 1975). 그러나 서구 제국도 그 양상이 반드시 획일적이지는 못하다. 예를 들어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시민 사회의 정상적 궤도 위에서 근대화 내지는 산업화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사회 구조를 간직한 채 역사적 발전을 경험한 나라이다(이민호, 1976).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근대화는 서양에서의 근대사의 진전을 그 표준형으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양에서는 봉건 제도의 붕괴에 뒤따른 근대 국민 국가의 탄생이 없었으며, 제도로서는 존재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국 문학사에서 근대를 설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시대 설정 이전에 기본적으로 문학의 이해와 관련되며, 문학사상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긴밀하게 관계를 가진다(국립중앙도서관, 2017).

수많은 저술과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근대자료는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 병인양요(1866년) 이후부터 20세기 중반 광복(1945년)까지의 시기에 생성된 자료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조선 말기 개항기, 대한제국 시기, 일제 강점기 등을 포괄하며, 서양 문물의 유입과 근대적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전통적 사회 구조가 해체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형성된 과도기적 시기를 반영한다. 특히 갑오개혁(1894-1896) 이후의 행정·교육·문화 제도 개편은 근대자료의 본격적 생산을 촉진했다. 이 시기는 조선 말기의 개항기부터 대한제국 시기,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근대가 충돌하고 융합된 과도기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근대자료는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

수적인 기반이 된다(이혜선, 1983).

전근대 자료가 주로 목판본이나 필사본 형태의 서적에 국한되었다면, 근대자료는 기술의 발전과 매체의 확장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서구의 인쇄 기술 도입으로 활판 인쇄본이 보편화되었으며, 신문, 잡지, 전단지과 같은 대중 매체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종이 기록물에 머물지 않고 사진, 유성기 음반(SP), 영화 필름 등 시청각 매체가 등장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보다 다각도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식 행정 체계가 도입되면서 토지 조사 사업 보고서나 인구 통계표 같은 체계화된 문서가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내용적으로 볼 때 근대자료는 근대 국가로의 이행 과정을 담고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먼저, 신분제 폐지와 교육 개혁, 철도 건설, 상업 활동 확대 등 사회 변동의 기록 및 근대화의 현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기차표, 광고지, 근대적 건축 도면 등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바꾼 근대적 생활사 자료들이다. 둘째,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통치 기구에 의해 생산된 관보, 통계, 공문서 등 공공 및 행정 기록을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경찰 보고서나 공출 명령서 등은 식민 지배 및 억압적 통치의 실체를 보여준다. 셋째, 근대적 교육과정에서 탄생한 교과서, 새로운 학문 체계를 소개한 번역서, 민족의식을 고취한 신문기사 등 지식과 계몽의 기록이 포함된다. 상업 광고 전단지나 유행가 가사집은 서민들의 일상과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6).

한국 근대자료는 현대 한국 사회가 형성되는 직접적인 뿌리를 보여주며 근대화의 격동기를 증언하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체계적인 보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일제 강점기의 정치적 압박, 한국전쟁의 혼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라졌으며, 현재까지도 개인 소장자나 소규모 기관에 분산 보관되어 접근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중한 근대자료를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2.3 부산시민도서관 소장 귀중자료

부산시민도서관은 1901년부터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서와 광복전일서(光復前日書) 등 여러 가지 고문헌의 수집과 관리는 물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8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고문헌 자료'를 주제로 한 전용자료실을 조성하였고,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일제강점기' 주제 특화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수집한 귀중한 고문헌 장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고문헌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귀중자료의 보존 및 공유에 이바지하고 있다.

부산시민도서관(고문헌자료실)에서 소장중인 주요 귀중자료로는 먼저 『포은시고(圃隱詩藁)』(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49호)를 들 수 있다. 시민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포은시고』는 초간본의 후쇄본이기는 하지만 임진왜

란 이전의 판본이 확실하며, 현재까지 이와 동일 판본으로 보이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정도의 귀중본(貴中本)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그리고, 『京城變動二關スル往復電報(경성변동에 관한 왕복전보)』, 『交隣須知(교린수지)』(부산시 문화재자료 제51호) 등 한·일 외교관련 고서 및 『朝鮮の類似宗教』 등 광복전일서는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 당시의 향토사와 분야별 근대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 및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朝鮮事務書』, 『京城變動二關スル往復電報』 등 근세 한·일 외교관계 원본자료 20여종 70여책, 『圃隱詩藁』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고서 3,623책, 『簡易修身書』 등 일제 강점기의 광복전일서 18,300여책을 소장하고 있다(부산시민도서관100년사 편찬위원회, 2002).

이 외에도 족보·문집 및 성씨 관련 자료 7,779책, 북한 및 공산권 자료 2,905책 등의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1950년대 및 이전 근대 발행자료 9,068권을 소장하고 있다(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2025).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민도서관에 소장된 1950년대 및 이전 발행 근대자료 9,068권을 대상으로 상태 점검, 목록 데이터 보정, 소장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의 가치 평가와 보존환경 진단을 수행하여 부산시민도서관의 근대자료를 포함한 귀중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 단계의 연구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고문헌 및 귀중자료의 보존 관리와 관련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을 정립하였다.

둘째, 부산시민도서관에 소장된 1950년대 및 이전 발행 근대자료 9,068권에 대해 현장 실물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대상 자료의 물리적 상태를 점검하고 열화 및 산화 등 훼손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연구대상 자료에 대한 목록 데이터의 점검 및 검증을 통해 서명, 저자, 발행연도, 판본 등 주요 서지사항을 확인하고, 목록 데이터의 오류를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문헌자료 및 웹 기반 정보원 조사, 국내 주요 종합목록시스템 검색 등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료의 국내 타기관 소장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다섯째, 국내 소장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 근대자료(9,068권)에 대해 국내 유일본, 희귀본, 초판본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역사적·자료적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여섯째, 부산시민도서관의 서고 환경 및 자료 보존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료 중 귀중자료와 일반 근대자료의 이용 활성화와 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물리적 상태 점검

#### 4.1.1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민도서관 2층 서고에 보관된 1950년대 및 이전 발행 근대자료 9,068 권을 대상으로 물리적 상태 점검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는 문헌정보학 전공 석사 이상의 전문인력 3명이 약 2개월간의 기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사 항목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은 개별 자료별로 해당 여부를 모두 표시하는 다중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료는 제작 당시의 열악한 인쇄·제작 환경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물리적 품질이 낮은 편이며, 장기간 체계적인 보존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보관되

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자료의 물리적 상태 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전체 장서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개별 소장자료를 부산시민도서관 장서 목록과 대조하여 소장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각 자료에 대해 열화, 산화 등 물리적 훼손 정도를 점검하는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 4.1.2 점검 결과

조사 대상자료의 물리적 상태 점검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곰팡이·해충 피해·얼룩'이 확인된 사례가 8,504건(93.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테이프 자국 및 녹슨 철심'으로 인한 손상 7,309건(80.60%), '표지 및 책등의 결실·손상' 7,121건(78.52%), '종이 재질의 취약화(바스러짐)' 6,965건(76.14%) 순으로 나

<표 1> 대상 자료의 물리적 상태 점검 항목

번호	상태 점검	번호	상태 점검
1	곰팡이, 해충 피해, 얼룩	5	바스러지는 종이 재질
2	내용 결실	6	기타 훼손
3	표지, 책등 결실·손상	7	훼손 없음(정상)
4	테이프 자국, 녹슨 철심	8	소재 불명

<표 2> 대상 자료의 물리적 상태 점검 결과

번호	상태 점검	자료(권) 수	피해율(%)
1	곰팡이, 해충 피해, 얼룩	8,504	93.78
2	내용 결실	204	2.24
3	표지, 책등 결실·손상	7,121	78.52
4	테이프 자국, 녹슨 철심	7,309	80.60
5	바스러지는 종이 재질	6,965	76.14
6	기타 훼손	69	0.76
7	훼손 없음(정상)	185	2.04
8	소재 불명	253	2.79

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자료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물리적 손상을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훼손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거의 없는 자료는 185건(2.05%)에 불과하였으며, 도서관 목록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소재불명 자료도 255건(2.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하여 조사 대상자료 9,068권 중 대다수는 물리적 손상이 누적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료의 물리적 손상은 1950년대 혹은 그 이전 발행 당시 종이 재질의 물리·화학적 취약성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친 이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취급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 4.2 목록데이터 점검

### 4.2.1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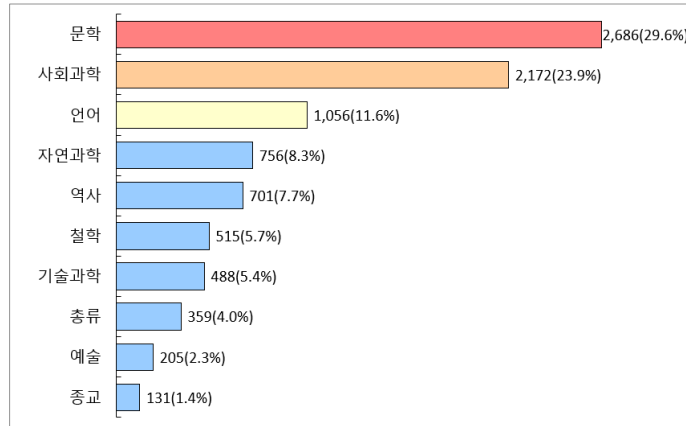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료(총 9,068권) 현물과 기 구축

된 부산시민도서관의 목록데이터를 대조하여 ‘표제,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등을 일일이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의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목록데이터 점검 절차는 <표 3>과 같다.

조사 대상자료의 주제별 및 유형별 분포는 <그림 1>, <표 4>와 같이 주제별로는 문학류(29.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과학(23.9%), 언어(11.6%), 자연과학(8.3%), 역사(7.7%) 등의 순이며, 유형별로는 동양서 단행본이 7,873건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참고도서, 어린이도서, 일본서, 일반논문, 제본신문’ 등이 있으며, 기존에 부여된 청구기호에 각각 별치기호로 구분하여 소장하고 있었다. 발행년도별 분포는 <표 5>에 정리한 바와 같이 1882년부터 1960년대 이후 영인본까지 다양하며, 1950년 이전 발간된 자료는 총 828권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 자료의 목록데이터 보완 작업 절차

구분	내용	비고
1단계	• 조사 대상자료 확보	• 조사 대상자료 목록 보정작업 파일 예시 
2단계	• 작업파일(엑셀) 구축 및 일련번호 부여	
3단계	• 실물조사(물리적 상태 점검 병행): ① 표제와 책임 표시사항, ② 판사항, ③ 발행사항, ④ 형태사항, ⑤ 총서사항, ⑥ 주기사항 등 6개 영역으로 대별하여 자료 현물과 기 구축 목록데이터 대조 및 입력 오류 파악	
4단계	• 종합목록 및 자관 목록파일 대조를 통한 수정사항 정리: 국가목록시스템(KOLIS-Net), KERIS 대학도서관종합목록 등 주요 종합목록과 대조작업을 통한 오류 크로스 체크 및 기록	
5단계	• 목록데이터 수정 작업용 데이터 작성 및 작업 지시서 인계	



〈그림 1〉 조사 대상자료의 주제별 분포

〈표 4〉 조사 대상자료의 유형별 분포

구분	수량(권)	비고(별칭기호)
동양서 단행본	7,873	-
어린이도서	192	어린이
참고도서	314	RF
일본서	563	日
일본 참고도서	40	日RF
일반논문	11	일반논문
제본신문	70	제본신문
기타	5	洋, JB, BP
계	9,068	

〈표 5〉 조사 대상자료의 발행연도별 분포

구분	수량(권)
1882 ~ 1900년	7
1901 ~ 1910년	27
1911 ~ 1920년	77
1921 ~ 1930년	143
1931 ~ 1940년	167
1941 ~ 1950년	407
1951 ~ 1959년	8,178
1960년 이후 ~	62*
계	9,068

\* 1960년대 이후 자료의 경우 목록데이터 점검 작업 전에는 0권이었으나, 실사작업 이후 62권으로 조사됨.

4.2.2 점검 결과

조사 대상자료의 현물과 기존 구축 목록 데이터를 대조·검증한 결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3,726건(41.1%)의 서지 레코드(중복 건수 포함)에서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253건(2.8%)은 소재 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 수정이 필요한 대상자료를 기술요소별로 ①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② 판사항, ③ 발행사항, ④ 형태사항, ⑤ 총서사항, ⑥ 주기사항으로 구분하여 실물자료와 기존 목록 레코드를 대조·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정리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발행사항'이 26.3%로 가장 높은 오류 비율을 보였으며, '형태사항'(15.6%),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11.3%), '주기사항'(0.9%), '총서사항'(0.8%), '판사항'(0.1%) 순으로 나타났다. 각 서지 레코드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된 오류는 모두 개별 건수로 계상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이어서 목록 데이터 오류의 유형은 오타자, 한자 변환 및 미변환 오류, 판·쇄 정보

입력 오류, 발행지 입력 오류, 형태사항 기술 시자료 수량 입력 오류, 총서명 또는 총서 권호 미입력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전산화 과정에서 카드목록을 MARC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 중 다수의 입력 오류가 누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근대자료의 경우 한자로 표기된 서지사항의 오식에 기인한 오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오류는 이용자의 검색 누락 및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서고 환경 분석

조사 대상자료는 현재 일반 보존서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해당 서고는 총 596.2㎡ 규모로, 조사 대상자료인 1950년대 이전 발행자료 9,068권을 포함하여 약 35만 권의 복본자료, 오·훼손자


<표 6> 목록데이터 점검 대상자료의 목록DB 보정 결과(1)

구분	보정 레코드 수	실물자료 소재불명	오류 없음	계
건수	3,726	253	5,089	9,068
비율(%)	41.1	2.8	56.1	100.0

<표 7> 목록데이터 점검 대상자료의 목록DB 보정 결과(2)

구분	조사 레코드 수	수정 필드 수	비율(%)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9,068	1,028	11.3
판사항		7	0.1
발행사항		2,387	26.3
형태사항		1,418	15.6
총서사항		70	0.8
주기사항		83	0.9
계(중복 오류 포함)	-	4,993	-

〈표 8〉 부산시민도서관 서고 현황

구분	현황	비고
위치	• 시민도서관 2층 서고	
면적	• 596.2㎡ (복층 1,185㎡)	
소장자료	• 조사대상 9,068권 포함 약 35만권	
환경	• 향온·향습 설비가 되어 있으나 전체 면적 대비 효과 미비 • 조립식 적층 서고, 철재서가	
인력	• 보존 전문 인력 없음 • 상주 전담 관리인력 없음	
운영	• 폐가제 서고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 목록의 오류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 이로 인한 이용자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는 자료도 확인됨	

료, 저이용도서 등이 함께 혼합 보관되어 있다. 특히 조사 대상자료는 우리나라 근대 출판 및 제본 기술이 충분히 정착되기 이전에 제작된 자료라는 점에서, 종이 재질과 제본 구조의 물리적·화학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현재와 같은 일반자료와의 혼합 보관 환경에서는 향후 손상 진행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산시민도서관은 1998년에 고문헌 분야 특성화도서관으로 지정된 이후, 귀중자료를 1층 고문헌실에 별도로 수장·관리하고 있다. 고문헌실에는 한·일 외교 관련 자료 원본을 비롯하여 국내 최고본(最古本)으로 추정되는 고서와 다수의 광복전일서 등 역사적·서지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특성화 자료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 향토사 및 분야별 근대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고문헌 특성화도서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헌실의 시설은 보존서고의 상황에 비하면 나은 편이지만, 조사대상 근대자료를 이관할 여유는 없다. 고문헌실은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203㎡ 규모에 21석의 열람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향온·향습 설비를 구비한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체 탈산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기록원과의 협약을 통해 정기적인 탈산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문헌 자료는 목재 서가에 수장하지만,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일부 문화재 지정 자료 및 희귀자료는 중성지 상자에 별도 보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산시민도서관의 고문헌실과 보존서고 관리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조사대상 근대자료에 대한 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귀중자료는 현재의 고문헌실로의 일부 이관하거나 다른 보존 공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4.4 국내 타기관 소장현황 조사

##### 4.4.1 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료(총 9,068권)의 전문가 가치 판단에 앞서 해당 자료의 국내 중복 소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종합목록시스템 교차 검색, 문헌 및 웹 정보원 등을 조사하였다. 구

〈표 9〉 부산시민도서관 고문헌실 현황

구분	현황
위치	• 부산시민도서관 1층 고문헌실
면적	• 203㎡
자료	• 포은시고(圃隱詩藁)(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49호)를 비롯한 한일외교관련 고서, 한·중·일 고서 등 귀중서·회귀서 및 일부 귀중자료
환경	• 향온향습 설비 있음 • 전시서가, 목제서가, 중성지상자
인력	• 전담인력 있음
운영 및 서비스	• 폐가제로 운영, 고문헌실 자료는 복사는 불가능하며, 대체자료(마이크로필름, 복사자료 등)에 한해서 복사 가능 • 일부 귀중본의 경우 디지털 변환됨 • 분기별 주제도서 선정 및 고문헌실 내(고문헌 전시대)에서 상설 전시 • 고문헌실 소장 자료인 광복전 일본서적 18,400여 책 중 한국 관련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일본 서적 및 순 일본 관련 서적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발간함 • 광복전일서(1,198종 1,795책), 고서(114종 661책)의 해제를 발간하였으며, 광복전일서 1,013건에 대한 고문헌해제DB를 제공하고 있음

체적으로 KOLIS(공공도서관종합목록), RISS(대학도서관 종합목록), 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5개 기관의 종합목록 및 온라인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료의 소장 여부를 조사하였다. 먼저, 문헌 및 웹 정보원 조사를 통해 1950년대 및 이전 발행 근대자료에 대한 개별 서책의 문헌적 특징 등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였고, 각 자료별로 5개 목록시스템에서 실제 검색을 통해 '국내소장 1책 자료(유일본)'와 '2책 자료', '3책 이상인 자료' 등의 국내 소장기관 중복 여부를 검증하였다.

4.4.2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료의 국내 타 기관 중복 소장 여

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 소장 1책 자료(유일본)', '국내 소장 2책 자료', '국내 소장 3책 이상 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자료는 단순히 1950년대 및 그 이전에 발간된 근대자료라는 시기적 특성에 그치지 않고,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쳐 형성된 한국인의 지적 경험을 반영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사적 유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당 자료는 국내 단행본, 참고도서, 어린이도서, 학술논문, 제본신문, 관보, 일본서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 소장 1책 자료'로 확인된 자료는 국내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자료적 가치를 지

〈표 10〉 조사 대상자료의 국내 소장현황 조사 결과

구분	1책(유일본)	2책	3책~5책	6책~10책	11책 이상	소재불명
건수	2,488	1,409	1,749	940	2,229	253
비율(%)	27.43	15.53	19.28	10.36	24.58	2.79

니다. 또한 ‘국내 소장 2책 자료’로 확인된 자료는 전체 조사 대상자료의 15.53%에 해당하는 1,409권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역시 유일본 자료가 훼손이나 멸실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보존 대체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4.5 자료의 가치 판단

##### 4.5.1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검증

부산시민도서관 소장 1950년대 및 이전 발행 근대자료 총 9,068권에 대한 자료의 가치 판단과 명칭 구분 등을 위하여 위에서 조사한 자료의 물리적 상태 점검, 목록데이터 보완, 소장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문헌 분야 전문가, 서지 분야 전문가, 문학 분야 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가위원회는 연구 수행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 11>과 같이 구성하였다. 전문가위원회에서는 본 연구 대상자료인 부산시민도서관 소장자료 9,068권에 대한 가치평가와 귀중자료로 분류된 자료에 대한 명칭 구분에 대한 의미 부여 등 자료의 가치판단과 체계적인 검증작업을 주로 진행하였다.

##### 4.5.2 가치 평가

국내 소장현황 조사 결과와 전문가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조사 대상자료의 가치평가를 위한 구분은 다음과 같이 1) 귀중자료: 국내 소장 1책 자료(복본을 제외한 유일본), 2) 준귀중자료: 국내 소장 2책 자료, 3) 일반자료: 국내 소장 3책 이상 자료를 포함한 그 외 자료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부산시민도서관의 국내 소장 1책 자료(2,488권) 즉, 귀중자료의 범주에 분류되는 자료의 가치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소장 1책 자료 2,488권 가운데 복본 973권을 제외한 1,515권을 귀중자료로 최종 지정하였으며, 복본 자료와 잡지, 제본신문 등은 일반자료로 분류하였다. 다만 ‘국내 소장 1책 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국내에 단 1책만 소장된 유일본 자료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가운데 1945년 이전 발행자료 중 잡지 영인본 등 내용적 평가가 불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 사료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간략 해제를 작성하였다. 이는 개별 자료가 지니는 시대적 배경, 내용적 특성, 형태적 특징 등에 대한 서술적 가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문가의

<표 11> 전문가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소속	학과	직위	비고
전문가 1	B대학교	집필재연구소	교수	서지학
전문가 2	D대학교	영상문학전공	교수	문학
전문가 3	K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
전문가 4	H고전번역원	번역사업본부	연구위원	서지학
전문가 5	G중앙도서관	고문헌과	연구관	고문헌
전문가 6	H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	고문헌
전문가 7	G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서지학

검증 및 자문에 따라 전체 자료 중 근대자료의 기준점(해방)이 될 수 있는 1945년을 기준으로 하여, 1945년 이전 발간자료 258권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자료의 서지적 가치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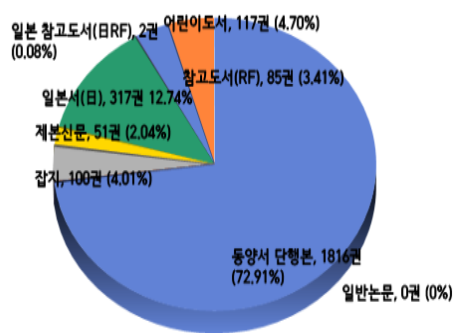
둘째, 자료 유형별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단행본이 1,816권(72.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일본서(12.74%), 어린이도서(4.70%), 잡지(4.01%), 참고도서(3.41%), 제본신문(2.0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복본은 973권으로 확인되었으며, 복본을 제외한 국내 소장 1책 자료는 1,515권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복본의 경우, 동일 자료가 최대 19권까지 중복 소장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셋째, 발행연도별 분포는 <표 12>와 같다. 구

체적으로 1950~1959년 발행자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29년 이전 발행자료도 8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930~1945년 발행자료는 119권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3·1운동 이후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문화통치로 전환되면서 1930년대 이후 출판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시대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주제별 분포는 <표 13>과 같다. 먼저 문학류가 765권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어(507권), 사회과학(331권), 역사(215권), 기술과학(177권) 순으로 많았으며, 예술과 종교, 철학 분야의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발행국별 분포는 <표 14>와 같



<그림 2> 국내 소장 1책 자료(유일본)의 일부 자료와 유형별 현황

<표 12> 국내 소장 1책 자료의 발행연도별 분포

구분	1929년 이전	1930-1945년	1946-1949년	1950-1959년	영인본(잡지)	계
권수	39	119	83	2,147	100	2,488

<표 13> 국내 소장 1책 자료의 주제별 분포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수량	165	109	34	331	135	177	50	507	765	215	2,488

〈표 14〉 국내 소장 1책 자료의 발행처별 분포

구분	국내	일본	중국	제본신문	미상	계
권수	1,999	404	16	51	18	2,488

다. 국내서(1,999권)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본서(404권)와 중국서(16권) 순으로 나타났으며, 1950년대 및 그 이전 발간 자료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일본서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 5. 논의사항

### 5.1 귀중자료 보존정책 수립

부산시민도서관은 귀중자료의 보존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보존정책이 필요한데, 그 보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표 15〉에 제시된 부산시민도서관 귀중자료 보존정책 수립지침(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1950년대 및 이전 발행 근대자료(9,068권) 중 앞에서 제시한 범주별로 귀중자료와 일반자료를 구분하되, 귀중자료의 경우 물리적 손상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해당 자료의 보존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칭)부산시민도서관 귀중자료 보존정책』은 모든 직원에게 귀중자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귀중자료수집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입직원 및 배치전환에 따른 교육훈련 매뉴얼로 활용하는 한편, 부산시민도서관의 체계적인 귀중자료 보존계획을 내외에 천명하는 정책홍보 문서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고서실 및 귀중자료실 운영과 관련

하여 자료 보존과 관련된 성문화된 규정 및 정책, 관련 인력과 조직,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및 업무 프로세스, 업무매뉴얼 등의 항목이 필요하고, 자료 보존과 관련해서는 원형보존 및 디지털화 등 매체변환을 위한 우선 자료(주제별·유형별)의 선정 기준이, 이용과 관련해서는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정책(대출, 열람, 복사 등) 및 자료의 개방 등급의 설정 등이 우선적으로 적시되어야 할 것이다.

### 5.2 서고 공간과 시설

현재의 부산시민도서관 서고 공간을 리모델링 혹은 제3의 장소로 이관하여 〈표 16〉과 같이 서고공간, 업무공간, 이용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매체변환실 등은 단계적으로 도서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부산시민도서관의 보존서고 적정 면적은 고정식서가를 도입하면 장서 1만권당 99㎡의 서고면적이 필요하며, 이동식서가를 도입할 경우 고정식서가의 40~60% 내외가 필요한데, 향후 귀중자료의 규모를 적절히 추산하여 서고 면적 및 서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만 관리 및 보존 업무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고서, 희귀본, 일반고서, 귀중자료’ 등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공간 구분을 통한 서고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귀중자료의 상태보존을 위한 ‘자료처리·소독·수선을 위한 공간’과 점차적

〈표 15〉 부산시민도서관 귀중자료 보존정책 수립지침(안)

구분	내용
1. 목적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사명과 목적</li> <li>• 보존정책 수립의 근거</li> <li>• 기관의 사명과 목적 및 보존정책의 연계성</li> </ul>
2.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정책의 핵심 용어 정의</li> </ul>
3. 정책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정책의 적용 범위(자료의 형태, 시간 등)</li> </ul>
4. 보존 철학, 표준,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에 대한 철학적 개념 정의, 표준, 윤리</li> <li>• 위험관리에 대한 기관의 방침이나 전략</li> </ul>
5. 보안 및 비상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용과 이용자로 각각 장서의 보안에 대한 책임소재</li> <li>• 건물 및 자료실의 보안 대책 및 전시 과정에서의 보안, 데이터의 접근과 조작에 대한 시스템 보안 등</li> <li>•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 계획과 절차, 업무지속을 위한 계획 등</li> </ul>
6. 매체변환 및 대체자료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변환 및 대체자료, 복제본 제작에 대한 사항</li> </ul>
7.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또는 대출이 가능한 자료의 유형에 대한 제한</li> <li>• 전시 대출 기간에 대한 제한</li> <li>• 보안과 취급 조건, 요구되는 환경기준과 조도, 전시케이스, 가구와 스탠드의 디자인, 이동 중 보안, 보험가입 책임 등</li> </ul>
8.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정책</li> <li>• 직원 및 이용자의 올바른 장서 취급방법에 대한 지침</li> <li>• 서가 상 자료를 제거하고 재배치하는 절차</li> <li>•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자료취급과 이용에 대한 정기적 훈련</li> <li>• 원자료의 손상을 방지하는 보호 조치</li> <li>• 이미지의 저작권과 재사용 조건</li> <li>• 제공되는 기기들의 사용 조건 등</li> </ul>
9. 서고환경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화학적 손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서고설비</li> <li>• 장서의 유형과 희귀성 및 가치, 크기나 모양에 따른 지침</li> <li>• 장서의 보관, 이용, 전시 환경의 관리를 위한 표준 및 보존정책 명시</li> <li>• 자료의 민감성, 중요성, 이용빈도 등을 고려한 환경관리전략 제시</li> <li>• 통합해충관리전략, 격리절차, 처리정책 포함</li> <li>• 먼지 제거, 일상적 청소 등을 위한 직원, 외주업체,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침</li> </ul>
10. 보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처리 우선순위 결정 방법</li> <li>• 보존처리관련 기록의 작성과 보관</li> <li>• 처리결정에 대한 정책</li> <li>• 훈련된 전문가의 활용</li> <li>• 보존처리 원칙, 전문적 표준과 윤리</li> </ul>
11. 훈련 및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및 지역사회 전반에 보존에 대한 인식 환기</li> <li>• 도서관 직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li> <li>• 보존 및 보전처리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li> </ul>

〈표 16〉 시민도서관 귀중자료 서고 공간구성(예시)

구분	공간구성
서고공간*	• 고서·희귀본·귀중본, 일반도서(열람용)
업무공간	• 자료소독실, 자료수선실, 매체변환실
이용공간	• (원본)자료열람실, PC검색공간 / 복사공간 / 마이크로필름 열람공간

\* 현재 부산시민도서관은 분리되어 있으나 추후 귀중본/희귀본 서고와 귀중자료 및 일반자료용 서고에 대한 공간 배분은 기관 내부의 논의가 필요함.

으로 조성이 필요한 매체변환을 위한 작업공간 등 '업무용 공간'과 귀중자료 공개 및 원본열람 정책에 의거한 '이용자 열람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부산시민도서관 공간계획에서 단기에 추진 가능한 대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2012)의 연구에 근거한 귀중자료용 보존서고(보존자료실)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표 17>과 같이 제안한다.

둘째 귀중자료의 보존을 위한 서고는 도서관 내에서 온·습도 관리상 가장 안전하며, 방법성과 관리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위치가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지상에 위치하는 편이 온·습도 유지와 공기순환이 용이해서 공기의 오염을 방지하고 해충 및 곰팡이에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민도서관의 귀중자료 보존환경 구축을 위해 도서관에서 참고할 만한 현행 규범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6>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셋째, 도서관 귀중자료의 현물 보존을 위한 서고는 '온·습도, 분진' 등 환경요소를 고려하되 '서고 크기, 서가' 등 자료의 수용 규모 및 보

존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서가와 열람실, 전시실 등을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기준』에 제시된 '서가, 서고 하중, 열람실, 전시실, 조명 사항' 등을 바탕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설 및 장비 측면에서 현재 시민도서관의 서고는 곰팡이, 미생물, 해충 등에 의한 훼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귀중자료의 수명 연장 및 영구보존을 위해서 서고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도난과 훼손 및 화재 등의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시설도 필요하다.

### 5.3 전담인력 보강

현재 부산시민도서관의 업무 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고문헌 및 귀중자료 관련 업무는 장서개발과 소속 2명의 전담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료가 보관된 일반 서고에는 전담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업무 분장상 고문헌실 및 귀중자료 관련 업무는 고문헌실 관리·운영, 고문헌 자료의 수집·정리 및 장서 관리, 고문헌 자료 전시 등 특성화 사업 기획·운영, 고문헌 도서 해

<표 17> 부산시민도서관 귀중자료 보존서고 산출모형

구분	적용기준과 산출내역
한계수장률	• 적용기준 85%(폐가제 기준)
표준서가의 규격	• 7단 양면서가(W × H): 1.83m(2련) × 210m(7단 × 30cm / 단)
서가당 점유면적	• 서가간격 1.5m(선반 깊이 0.25m × 2개 + 실제 서가간 간격 1m) × [서가길이 1.83m(0.9m × 2련 + 여유율 3cm) + 통로폭 0.6m] = 3.7㎡
선반당 수장책수	• 25권(도서의 평균 두께 3cm 적용)
서가당 수장책수	• 선반당 25권 × 선반 28개(7단 2련 양면) = 700권
1㎡당 수장책수	• 700권 ÷ 3.7㎡ = 189권
필요면적 (9,068권 소장시)	• 9,068권 ÷ 189권 = 47.97㎡(14.57평)

제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고서 및 광복전일서 관리, 열람 및 이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범위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 인력 구조만으로는 체계적인 귀중자료 보존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부산시민도서관이 고문헌 특성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장(收藏)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나아가, 귀중자료를 활용한 연구 지원 및 이용 활성화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귀중자료를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목록·도록·회귀본 영인본·해제집 등의 자체 발간 사업, 학술 연구 지원 서비스, 창의 체험형 교

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 확대는 곧 전문적인 기획·연구·보존·서비스 역량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조직 신설 또는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업무 분화와 역할 재설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표 18>과 같이 부산시민도서관의 귀중자료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의 기능별 업무분장(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국 귀중자료 보존 및 활용 체계의 고도화는 인력 구조 개편과 전문 인력 확보를 전제로 할 때에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향후 고문헌 특성화도서관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독립공간 확보, 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18> 부산시민도서관 귀중자료 관리를 위한 기능별 업무분장(안)

구분	내 용
자료 보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서 및 귀중자료 관리 지침 및 기준의 제·개정</li> <li>• 시민도서관 고서 및 귀중자료 중장기 보존정책 및 전략의 수립</li> <li>• 고서 및 귀중자료, 서고 관리</li> <li>• 서고의 주기적 장서점검 및 평가</li> <li>• 보존 및 서고 환경관리(살균소독, 탈산, 훈증 등)</li> <li>• 서고 재난관리</li> <li>• 파손된 자료의 수선·재제본 처리</li> <li>• 보존자료 열화대책 수립</li> </ul>
서지정보 구축 및 해제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관 목록DB 구축 및 수정</li> <li>• 고서 및 귀중본 해제 작업 및 가치평가</li> </ul>
대체자료 제작 및 매체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매체 및 영인본 복사본 제작</li> <li>• 파·오손자료의 대체본 제작</li> <li>• 접근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중장기적 계획)</li> </ul>
직원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중앙도서관 보존 관련 연수교육 프로그램 참가</li> <li>• 자체 보존 관련 연수 및 프로그램 참가</li> </ul>
자료 보존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타 도서관 고서실·귀중본실 및 자료보존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li> </ul>
이용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이용자를 위한 전시 및 열람지원 서비스</li> <li>• 자료 복사 및 스캐닝 서비스 지원</li> <li>•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정보상담서비스</li> </ul>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시민도서관에 소장된 1950년대 및 이전 발행 근대자료 9,068권을 대상으로 물리적 상태 점검, 목록 데이터 검증 및 보정, 국내 소장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자료의 가치 평가와 보존 환경 진단을 통해 부산시민도서관이 소장한 근대자료를 포함한 귀중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민도서관 소장 1950년대 및 이전 발행 근대자료 9,068권에 대한 물리적 상태 점검 결과, '곰팡이·해충 피해·얼룩'이 8,504건(93.78%), '테이프 자국·녹슨 철심'이 7,309건(80.60%), '표지 및 책등의 결실·손상'이 7,121건(78.52%), '종이 재질의 취약화(바스러짐)'가 6,965건(76.14%)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자료가 하나 이상의 물리적 손상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훼손이 거의 없는 자료는 185건(2.0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연구 대상자료 9,068권에 대한 목록 데이터 점검 결과, 총 3,726건(41.1%)의 서지 레코드에서 오류가 확인되어 검증 및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53건(2.8%)은 실물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요소별 오류 분포를 살펴보면 '발행사항'(26.3%), '형태사항'(15.6%),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11.3%), '주기사항'(0.9%), '총서사항'(0.8%), '판사항'(0.1%) 순으로 나타나, 도서관 전산화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 품질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문헌 및 웹 정보원 조사와 관종별 종합목록시스템 검색을 통해 국내 소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소장 1책 자료'는 2,488권(27.4%), '국내 소장 2책 자료'는 1,409권(15.53%), '국내 소장 3책 이상 자료'는 4,918권(54.2%)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자료 중 상당수가 국내 희소본 또는 준희소본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넷째, 조사 대상자료는 현재 일반 보존서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1950년대 이전 발행 근대자료 9,068권을 포함하여 약 35만 권의 복본자료, 오·훼손자료, 저이용도서 등이 함께 혼합 보관되어 있다. 특히 조사 대상자료는 우리나라 근대 출판 및 제본 기술이 충분히 정착되기 이전에 제작된 자료라는 점에서, 종이 재질과 제본 구조의 물리적·화학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현재와 같은 일반자료와의 혼합 보관 환경에서는 향후 손상 진행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사대상 근대자료에 대한 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존 우선순위가 높은 일부 자료는 현재 고문헌실로의 일부 이관 혹은 다른 보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국내 소장 1책 자료 2,488권 가운데 복본 973권을 제외한 1,515권을 귀중자료로 최종 지정하였으며, 복본 자료와 잡지, 제본신문 등은 일반자료로 분류하였다. 다만 '국내 소장 1책 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국내에 단 1책만 소장된 유일본 자료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가운데 1945년 이전 발행자료 중 잡지 영인본 등 내용적 평가가 불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 사료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간략 해제를 작성하였다. 이는 개별 자료가 지니는 시대적 배경, 내용적 특성, 형태적 특징 등에 대한 서술적 가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문가의 검증 및 자문에 따라 전체 자료 중 근대자료의 기준점(해방)이 될 수 있는 1945년을 기준으로 하여, 1945년 이전 발간자료 258권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자료의 서지적 가치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부산시민도서관의 근대자료를 포함한 귀중자료 보존체계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산시민도서관은 귀중자료 보존을 위하여 현재의 서고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별도의 전용 공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귀중자료 관리 및 보존 업무를 위하여 '고서, 희귀본, 일반고서, 귀중자료' 등 자료의 중요도에 따른 공간 구분을 통해 서고를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기능별로 자료처리·소독·수선을 위한 공간, 업무용 공간, 이용자 열람공간 등으로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서고 공간의 리모델링 또는 전용공간으로의 이전 전 단계에서는 현 귀중자료 보존공간의 구역 분리, 자료 소장 밀도의 조정, 서고 기본 환경관리체계 구축 등 현실적으로 실행이 용이한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부산시민도서관의 서고에 수장된 근대자료 9,068권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자료의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추가적인 귀중자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적 열화나 산성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처치와 서고 소독 등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조사 대상 귀중자료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탈산처리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존서고는 국내외 여러 기준이 있으나 통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근거하여 온도 20±2℃, 습도 50±5%를 준수하도록 항온·항습 설비를 통한 기준 준수가 지켜져야 하는 것과, 보존서고의 서기는 미생물이나 해충 방지를 위하여 나무보다 금속재질 서기를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행정안전부, 2025, 대통령령 제35506호). 추가적으로 보존서고 자료의 영구적 보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일정한 실내 공간을 원하는 온도·습도·기류 분포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부산시민도서관의 고문헌 및 귀중자료 관리의 체계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문헌 특화도서관의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직 정비 및 인력 보강을 통한 귀중자료 보존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귀중자료의 가치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해제 작업, 전시와 홍보 및 교육의 실시, 이용자의 계층별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보강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또한 부산시민도서관의 고문헌 및 귀중자료 이용 활성화와 지역 유관 기관 및 학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은 학예직, 별정직, 전문임기제, 전문관 등 공무원 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제도를 통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존 담당자의 계속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계속교육과 신진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5506호.
- 국립중앙도서관 (2014).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11-1371029-000096-01).
- 국립중앙도서관 (2016). 국립중앙도서관 주제가이드의 한국 근대문학분야 보완을 위한 후속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2017). 근대문학자료 도서관서비스 방안 개발 연구 (11-1371029-000155-01).
- 국립중앙도서관 (2018). 한국 고문헌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11-1371029-000171-01).
- 국립중앙도서관 (2023. 12. 19.). 아낌없이 기증해 준 유산,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로 지정되다. 국립중앙도서관. 출처: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
- 김수미 (2018). 국내 소장 서양고서의 훼손과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 타당성 연구 (11-1371000-000424-01).
- 민석홍 (1975). 서양근대사 연구. 서울: 열조각.
- 박현주 (2012). 공공도서관 장서특성화 사례 연구. 2012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29-47.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2025. 11. 25.). 도서관 자료실 안내.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출처: <https://home.pen.go.kr/siminlib/cm/cntnts/cntntsView.do?mi=13246&cntntsId=1439>
- 부산시민도서관100년사 편찬위원회 (2002). 부산시민도서관 100년사: 1901-2001. 부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서혜란, 김선애, 강은영 (2015). 공공도서관 자료보존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111-134.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2.111>
- 이돌프 크놀, 윤정옥 (2005). 도서관 희귀 자료의 보존과 접근을 위한 디지털화의 표준화.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26-41.
- 이민호 (1976). 근대 독일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혜선 (1983).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근대 문학의 기점.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0(0), 102-118.
- 조영주 (2004). 도서관 및 기록관 자료보존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101-116.
-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 12. 22.). 귀중본.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723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dolf, K. & Yoon, Jung-Ok (2009). Standardizing digitization for preservation and access to rare

- library material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5(2), 26-41.
- Busan Metropolitan Simin Library (2025, November 25). Library reference room guide. Busan Metropolitan Simin Library. Available:  
<https://home.pen.go.kr/siminlib/cm/cntnts/cntntsView.do?mi=13246&cntntsId=1439>
- Busan Simin Library 100-Year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2002). *Busan Simin Library 100 Years of History: 1901-2001*. Busan: Busan Metropolitan Simin Library.
- Jo, Young-Ju (2004). A study on the preservation programs in libraries and archive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4(1), 101-116.
- Kim, Su-mi (2018). Study on Damage of Western Old and Valuable Books and a Method to Conserve Them. Master's thesis, Yong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Arts.
- Lee, Hye-Sun (1983).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Korean literature from a comparative literary perspective. *The Formation Process of Modern Literature*, 0(0), 102-118.
- Lee, Min-Ho (1976). *Studies on Modern German Histor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Min, Seok-Hong (1975). *Studies on Modern Western History*. Seoul: Eoljogag.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Construction of a Regional Joint Preservation Repository (11-1371000-000424-01).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4). A Survey Report on the Collection of Modern Literature Materials in Korea (11-1371029-000096-01).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6). A Subsequent Study on the Main Guid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o Complement the Modern Literature Field in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brary Service Plan for Modern Literature Materials (11-1371029-000155-01).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 A Study on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Management of Korean Ancient Literature (11-1371029-000171-01).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3, December 19). A generously donated legacy designated as a valuable resource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Available: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
- Park, Hyun-Ju (2012). A case study on public library collection specialization. *Proceedings of the 201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Winter Conference*, 29-47.
- Suh, Hye-Ran, Kim, Sun-Ae, & Kang, Eun-Yeong (2015). The status quo and tasks of the collection preservation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2), 111-134.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2.111>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5, December 22). Valuable book.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Available: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7235>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35506.